하반기 농산물 가격 '불안불안'

폭염·잦은 장마·태풍에 재배면적 배추 5.7%·마늘 6% 감소 전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 천일염 값 급등…서민들 가계부담 커져

올 여름 농산물 값이 평년보다 비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배추와 마늘 등 우리 밥상에 없어서는 안될 식재료가 재배면적 감소와 올 여름 폭염 등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천일염 값까지 폭등하면서 가뜩이나 고물가로 힘겨운 가계 경제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여름철 폭염 등으로 배추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여름 잦은 강우와 고온, 태풍 등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배추의 경우 올해 여름철 재배면적이 1년 전과 비교해 5.7% 감소한 상황인 만큼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작년 여름철의 경우 폭염과 폭우 등의 영향으로 배추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9월 초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하며 배추 도매가격이 한 달 새 2배로 뛰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과와 배 공급량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과일 수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3월말~4월초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냉해로 착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이달 우박까지 내려 과수농가의 피해가 커졌다.

마늘도 평년보다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이날 2023년산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6% 감소한 31만 4000t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감소 전망은 평년 대비 면적과 단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농업관측센터의 지난 2월 표본농가 실측 조사 결과,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평년보다 4% 감소한 2만4629㏊로 집계됐으나 예상단수(6월 1일 기준)는 평년보다 2% 감소한 1275㎏/1000㎡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달 전망치 보다 4% 가까이 감소한 수치인데 마늘 구비대기인 4~5월 저온과 잦은 강우로 생육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한지형 마늘 일부 주산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확이 마무리됐으나 농업관측센터의 생산량 실측 결과를 반영할 경우, 2023년 마늘 단수는 전망치보다 더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깐마늘 도매가격은 현재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3년산 햇마늘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7월에는 평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해, 도매가격은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재 낮게 거래되던 포전거래 가격도 상승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천일염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올 여름 밥상물가는 여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어서 시민들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봄·여름 배추 정부 비축량을 1만7000t으로, 작년보다 45.3% 늘리기로 했다. 여름 배추 계약재배 물량은 작년 5만2000t에서 올해 5만5000t으로 늘린다"며 "무도 작황 부진에 대비해 봄·여름 무 6천t을 비축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작년 4만7000t에서 올해 5만t으로 확대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배추와 무 수입선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6·25 참전유공자 축산물 나눔

녹색한우조공, 한우곰탕 전달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남도지부와 지난 23일 나주 보훈회관에서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감사의 축산물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6·25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남농협은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나주시지회(지회장 조기영)에 녹색한우조공에서 생산한 한우곰탕 1500인분을 전달했다.

박종탁 본부장은"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용사분들의 호국정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남농협은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헌신을 가슴에 기억하기 위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23일 농협중앙회 광주검사국에서 열린 '사고없는 농협 구현을 위한 감사업무 컨퍼런스'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협광주검사국, 농축협 감사업무 컨퍼런스 개최

인권침해 근절 방안 등 논의

농협중앙회 광주검사국은 지난 23일 농협광주본부 2층 회의실에서 지역농협 감사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고없는 농협 구현을 위한 감사업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고사례 전파와 감사기법 공유, 감사업무 담당자간 상호토론 등 감사업무 활성화 및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감사업무 내실화를 위해 ▲인권침해 사고 근절방안 ▲횡령사고 근절방안 ▲복무규정 준수 등에 대해 열띤 토론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 1부에는 농협광주본부와 광주검사국 합동으로 농협의 건전한 조직문화 강화를 위해 현직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각 농협 인사담당 책임자까지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인권보호의 중요성,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임덕수 과주검사국장은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한 조합원과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신뢰받는 깨끗한 농협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아차사고' 사례 발굴대회 농관원, 다음달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농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차사고 사례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차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나 시설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뜻한다.

농관원은 심사를 통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오는 9월 수상작을 발표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올해 아카시아꿀 생산량 벌통당 26.8kg

농진청, 평년보다 웃돌아
꿀벌 폐사에도 수급 원활

농촌진흥청(농진청)은 올해 아카시아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아카시아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꿀의 70% 이상을 차지해 국내 양봉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산물로 꼽힌다.

농진청은 한국양봉협회 등과 지난달 5~26일 전국 36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올해 벌통당 아카시아꿀 생산량이 26.8㎏로, 양봉업계에서 평년 기준으로 삼는 2017년 생산량(17.7㎏)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작황이 좋았던 지난해(32.1㎏)와 비교하면 83.5% 수준이다.

한상미 농진청 양봉생태과장은 "벌꿀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또 응애병이 조사 대상 농가 중 3곳에서만 확인됐으며, 사례별로 벌통당 1~2마리가 감염된 수준이어서 방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12월 꿀벌 해충인 응애가 확산해 꿀벌이 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서 올해 꿀 생산량이 줄어 농가 피해가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응애는 꿀벌 전염병인 꿀벌응애감염증을 일으키는 해충으로, 꿀벌이 응애에 감염되면 발육이 저하되고 심하면 봉군(벌무리)이 폐사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2월부터 국산 참외·멜론, 호주 수출 길 열려

검역 협상 마무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호주와의 수출 검역 협상이 마무리돼 오는 12월부터 국산 참외와 멜론을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농산물 중 기존의 수출 가능 품목인 포도, 딸기, 양파, 배, 감, 파프리카, 접목선인장에 2개 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호주로 수출하는 참외와 멜론은 온실에서 재배한 것으로, 수출 가능 기간은 호박과실파리 발생이 없는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다. 재배지 검역,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수출 샘플 검사 등의 수출 검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역 협상 타결이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참외, 멜론 농가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